

모바일 콘텐츠의 개발 방향

확장하는 모바일 시장과 정보접근성을 바탕으로

콘텐츠디자인학랩 이동훈

iPad, 한국시장 진출



2010년 11월 30일 대한민국에 KT를 통해 아이패드가 정식으로 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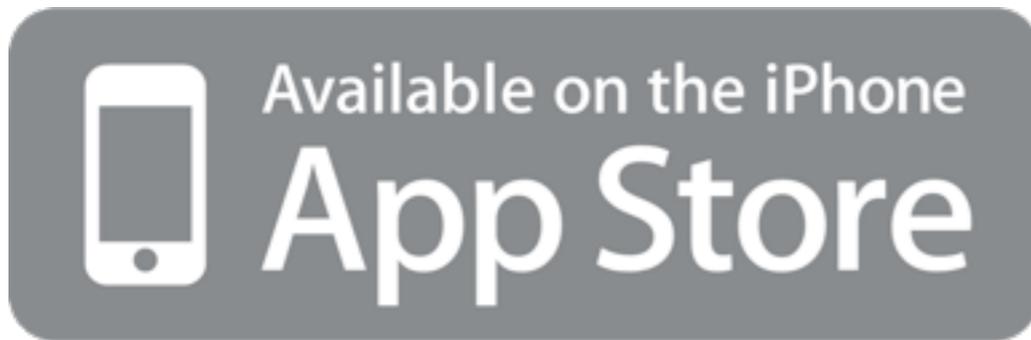
애플의 성공배경 : 앱장터. 어플리케이션의 홍수



Thanks a billion.

Over 1 billion downloads in just nine months.
Only on the App Store. [Learn more >](#)

The Billion App Countdown promotion has ended.
Please come back to this page soon to see who won.
[Official Rules >](#) [Reglas Oficiale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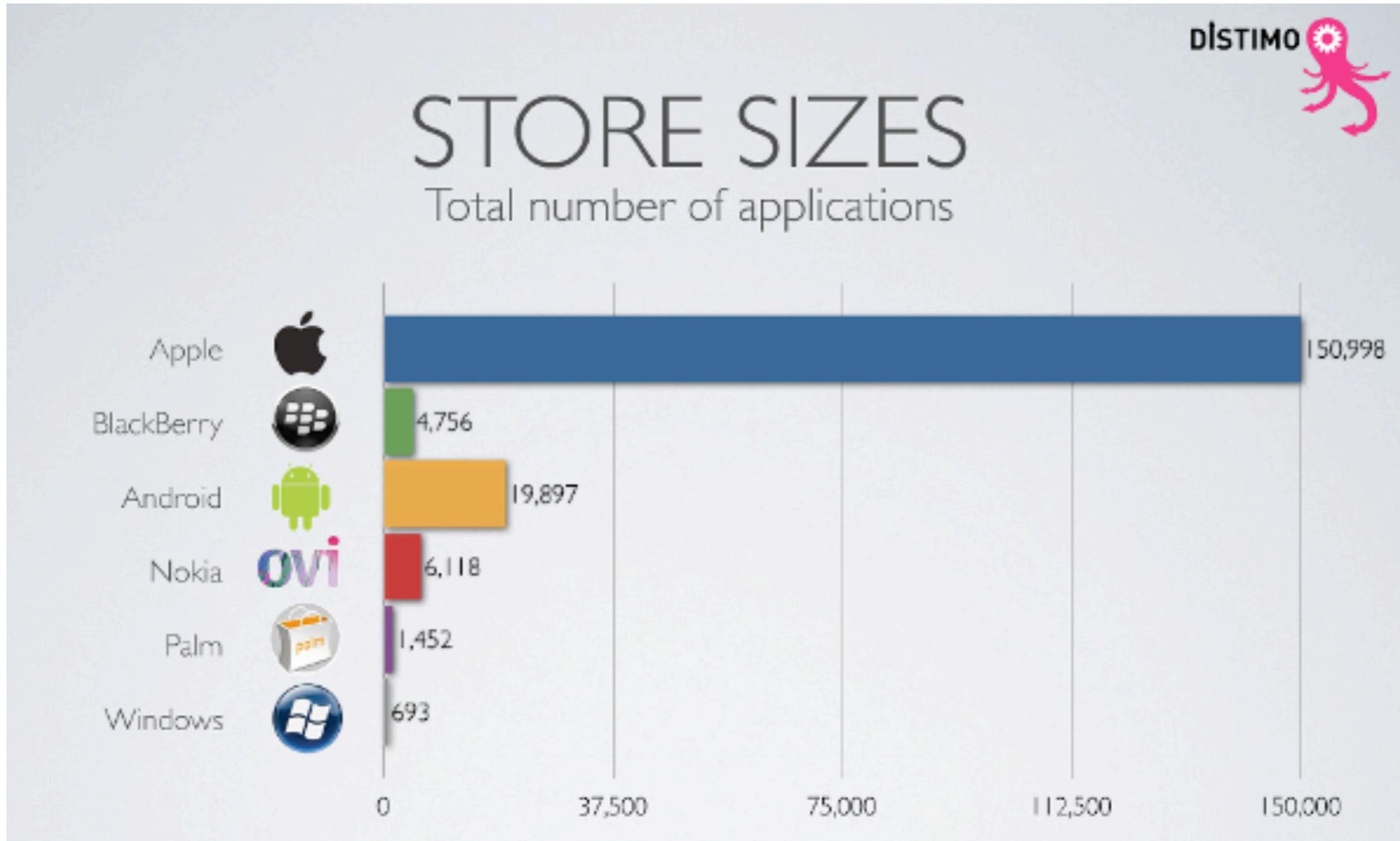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의 성공 배경에는, 앱장터 라는 커다란 상점을 통해서이다.
앱장터를 통해, 개발자는 쉽게 프로그램을 판매할 수 있고, 사용자 역시 쉽게 구입이 가능해졌다.

모바일 시장의 확대 : 후발주자의 등장.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성공에 이어, 후발주자들이 등장하였다. 최근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진영, 모바일 시장에 다시 도전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모바일 7, 아직은 미비하지만 과감하게 시작한 삼성의 바다, 이밖에 휴대전화를 배제한, 블랙베리의 타블렛, 순수하게 네트워크로만 동작하는 구글의 크롬운영체제 등이 있다.

모바일 시장의 확대 : 앱 시장의 확장



<http://www.wired.com/gadgetlab/2010/02/the-state-of-mobile-app-stores-summarized-in-charts/>

모바일 시장의 확대와 함께 앱장터 또한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애플의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의 안드로이드마켓이 있다.

모바일 시장의 확대 : 앱의 흥수, 그리고 문제점

돈버는 모바일 아이폰앱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 지름 · 애플이 올린 · 혁신적 우수

컴퓨터 1대와 간단한 아이디어만으로 시작하는 고소득 글로벌 비즈니스!

HOW TO MAKE MONEY WITH IPHONE APPS IN YOUR SPARE TIME

“나는 오늘도 앱스토어로 출근한다”
주말만 투자해도 창업할 수 있다! 아이폰으로 거머쥐는 최고의 사업기회!

한국경제신문

"아이폰으로 꿈을 이루자" 아이폰 앱 제작 스토리

한마디로 '아이폰 쇼크'입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상징되는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앱) 제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10만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이 외부 개발자에 의해 만들어지고, 전세계적으로 15억여번의 다운로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그인하기

국내 모바일 및 웹 기획자나 개발자 모두 아이폰 앱 제작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가능성은 검증됐습니다. 국내 기획자 및 개발자들이 만든 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들이 전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폰 앱 제작스토리'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아이폰 앱 제작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획자, 개발자 모두에게 꿈과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줄 것입니다. 아이폰 앱 시장 전망을 살펴보고, 아이폰 앱 제작에 필요한 마케팅은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답을 줄 것입니다.

또한 이미 앞서 꿈을 이루고 있는 기획자 및 개발자 등의 도전 스토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도전하세요. '아이폰 앱 제작 스토리' 에서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스마트 워킹 고용증대 효과>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일자리수(천개)	54	64	75	88	104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는 개발자들이 몰리고 있고, 스마트폰 개발붐이 일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경제적 가치와 시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게 사실이다.

모바일 시장의 확대 : 앱의 홍수, 그리고 문제점

경제 ▾ **공공기관 스마트폰 앱, 아이폰 쓸림현상 심하다**
IT 이대일리

기사 100자평 (0)

입력 : 2010.04.16 11:04

정부부처 등 앱 만들기 열풍..방통위·재정부 등 대부분 `아이폰용` 차별 논란..삼성전자 "바다OS용도 개발"요청

정부·공공기관이 정책홍보를 위한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연이어 만들고 있다.

하지만 아이폰용 앱 만들기에만 집중돼, 다른 OS(운영체제)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애플과 경쟁관계인 **삼성전자**가 정부부처에 안드로이드 및 바다 OS용 앱 개발을 요청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말을 목표로 애플 앱스토어에 정책홍보 애플리케이션을 등록시킬 예정이다. 이 앱에는 실시간 보도자료 보기, 방통위 블로그, 방송통신분야 상식 등이 담긴다.

정치 ▾ **정부부처, '묻지마'식 앱 개발에 혈세만 날린다**
정부·지자체 조선닷컴

기사 100자평 (1)

입력 : 2010.08.12 21:09

정부 부처들이 스마트폰 열풍을 타고 애플리케이션(앱)과 모바일용 웹 페이지 개발을 위해 '묻지마식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12일 보도했다.

특정 단말기에만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은데다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도 아랑곳 않는다. 무분별한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지침까지 내렸지만 부처 간 경쟁은 식을 줄 모른다. 12일 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앱 개발 등 모바일 기반 서비스를 위해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이 236억원에 이른다.

이 신문에 따르면 각 부처는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InfoGraphics 대한민국 군함들 어떻게 나누나?

InfoGraphics

대한민국 군함들 어떻게 나누어지나?

바로가기

대한민국 군함이 크게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아보고 1950년 이후 군함의 발전사를 간략히 짚어보자



정부기관에서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 너도나도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내고 있으나, 인기많은 특정 플랫폼을 위한 앱을 우선적으로 내놓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열린 웹 : 월드 와이드 웹

WWW

인터넷 상에서 동작하는 하나의 서비스이다.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을 통해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정보공간
간단히 웹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A photograph of two men in suits sitting in ornate, gold-trimmed chairs. The man on the left is looking towards the man on the right. The man on the right is holding a small white card. A green glass bottle is on a table in the foreground. The background is a dark, textured wall.

“
웹은 보편성과 평등성, 개방성을 원칙으로
한다. 누구라도 특허와 상관없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웹을 이용할 수 있다.”

팀 버너스 리 - 웹의 창시자

열린 웹 : 플래시 vs 웹표준



HTML5.0



플래시는 HTML의 표준이 아니다.
휴대기기의 선두주자인 애플은 무겁고 오류도 많은 플래시를 자사의 휴대용 기기에서 지원하지 않는다.
현재 플래시를 대체할 웹 표준안이 진행중에 있으며, 이는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열린 웹 : 오픈웹. 열린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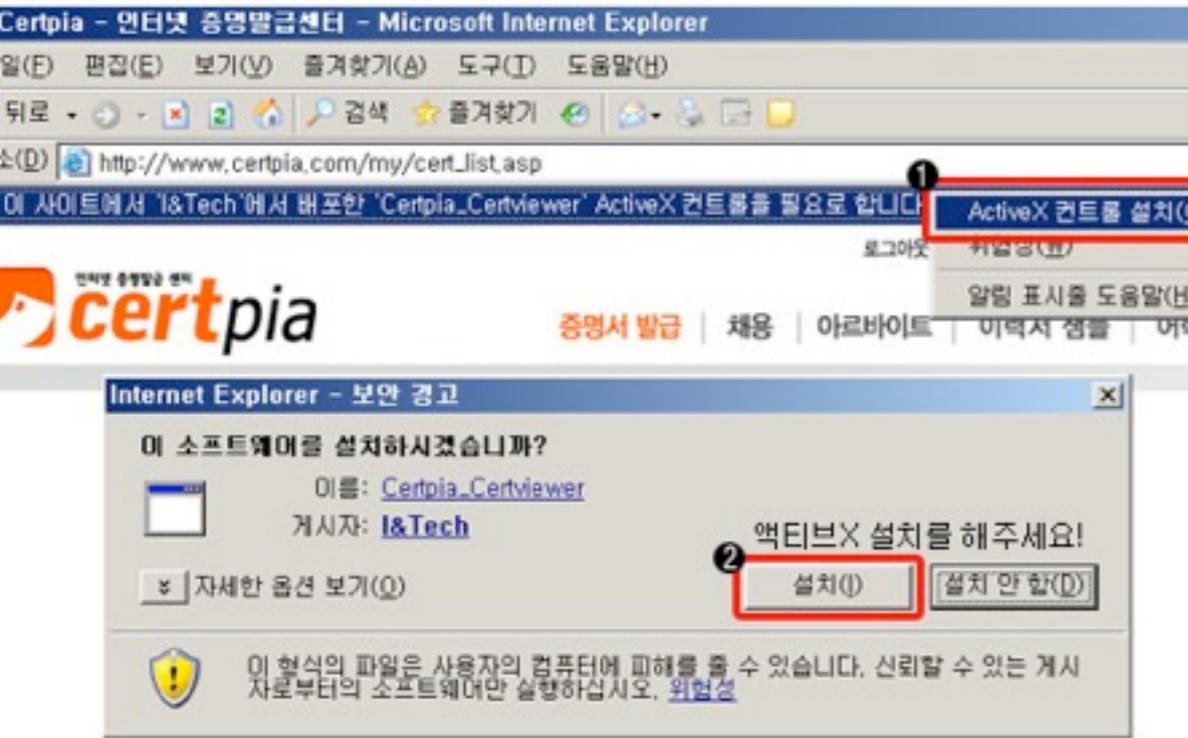
Active-X 등 별도 프로그램 설치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접근성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만들었습니다.
플래시 이미지 등을 과감하게 배제하였습니다.

오픈웹이란, 특정 운영체제나 특정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만 동작하는것이 아닌, 어떤 플랫폼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열린 웹을 의미한다.

최근들어 국내에도 이런 열린웹을 지향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웹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것만은 사실이다.

열린 웹 : 그러나 국내의 현실은?



■ 싸이월드 뮤직 플레이어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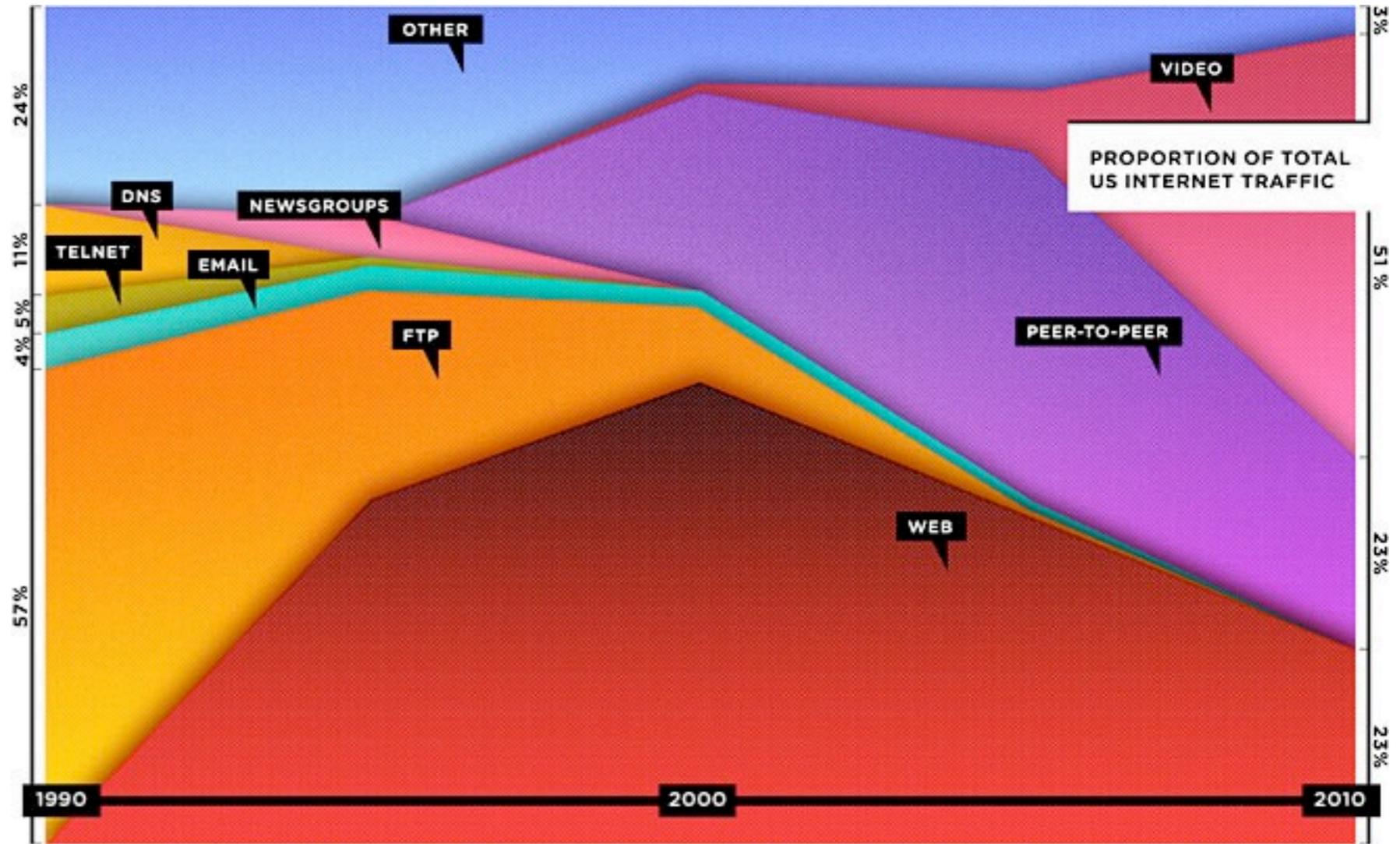
싸이월드 음악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플러그인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안정적인 음악 서비스를 제공을 위하여 플러그인 프로그램에 그리드 딜리버리(Grid Delivery)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기술에는 회원 컴퓨터의 일부 리소스를 활용하여 다른 회원에게 음원 등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이 포함됩니다.



국내에서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이트들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지원하는 페이지가 많으며, 특히 인증서관련 금융기관이나 국가기관이 많다.

앱 vs 웹 : 웹은 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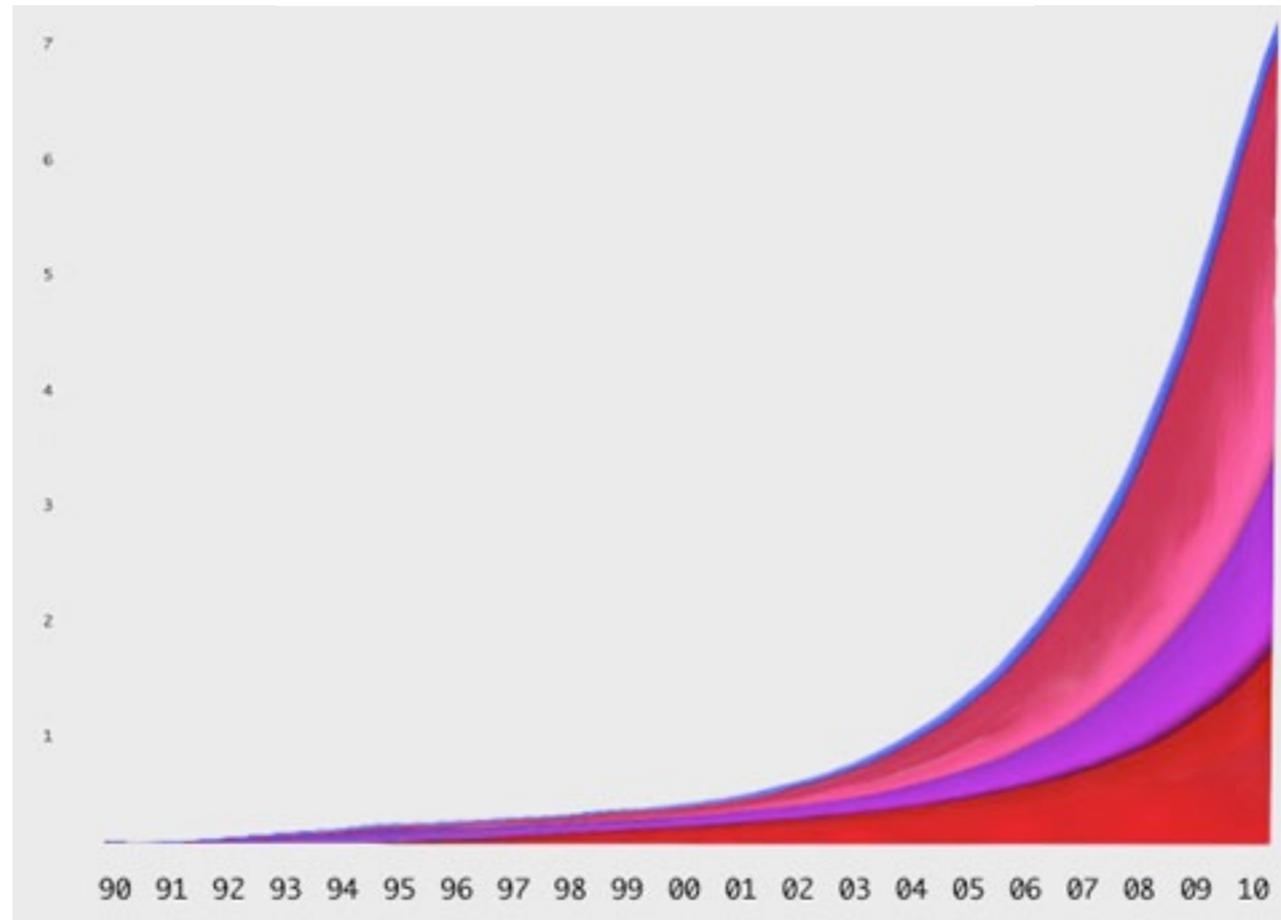
<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0031&newsid=20100823141603836&p=Edaily>

앱이 등장한 이후 웹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

80년대부터 시작된 웹이 점점 하향세를 향해 가고 있다는 와이어드의 다소 자극적인 기사가 있었다. 인터넷의 중심이 웹에서 앱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이제는 웹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다.

앱 vs 웹 : 웹은 죽지 않았다!

보잉보잉이 재구성한 웹트래픽 그래프



하지만 미국의 열성 누리꾼 보잉보잉은 앞의 사용량 그래프를 재구성하며 반박했다. 웹을 포함한 전체 인터넷 트래픽이 2000년 이후 급성장하고 있으며 현재도 그러한 추세라는 것이다. 동영상과 개인간 파일전송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늘었을 뿐, 앱이 웹을 대체했다고 보기엔 무리이다.

<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0031&newsid=20100823141603836&p=Edaily>

앱 vs 웹 : 앱과 웹은 다르지 않다!



페이스북은 국내에서의 싸이월드와 다르게 다양한 플랫폼에 열려있다. 때문에 웹이든,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이든, 쉽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 미국내에서는 페이스북은 특정 기기에서만 접근가능한 서비스가 아니라 마치 전기나 수도물처럼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앱 vs 웹 : 앱과 웹은 다르지 않다!

경기도, 아이폰용 버스정보 차단 해프닝

‘공공정보 무단사용’ 차단조치에 이용자 반발
경기도, 예상외 반발에 당혹..아고라에 ‘사죄글’

입력시간:2009.12.17 19:22

[이데일리 임일곤기자] 경기도가 애플 아이폰을 통해 제공되는 버스 교통정보를 차단했다가 이용자들 반발에 부딪혀 입장을 바꾸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17일 경기도는 아이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서울 버스(Seoul Bus)’ 정보를 이날 오후 6시경 재개통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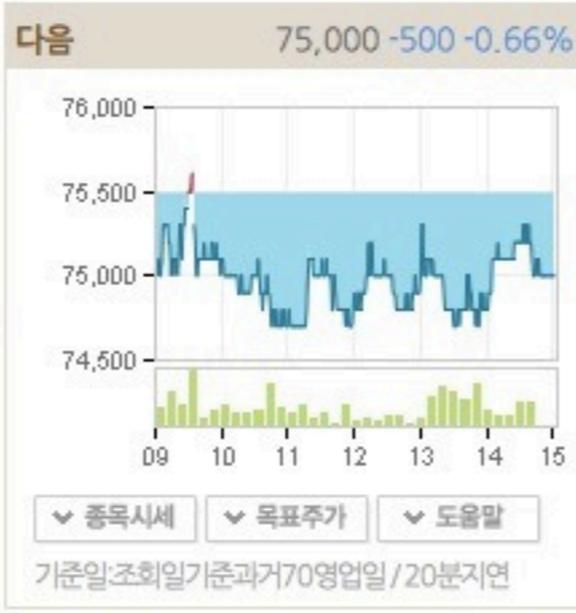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아이폰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서울버스’ 정보제공을 얼마전 차단했다.

이 응용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자신의 위치를 입력하면 주변 버스 정류장 버스 도착시각은 물론 차량번호까지 알려줘 시민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한 고등학교 학생이 제작해 무료로 애플 온라인장터 ‘앱스토어’에 올려 화제를 낳기도 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서울버스’가 공공정보를 무단 이용하고 협의없이 제작된 것이라며 최근 정보 제공을 차단했다.

이러자 이용자들은 경기도가 시민들 불편을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인 조치를 내렸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포털 다음(035720) (75,000원 ▼ 500 -0.66%) 게시판 ‘아고라’에는 관련 게시물들이 쏟아졌고, 경기도 홈페이지에도 교통민원신고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용자들은 수익 목적이 아니라 공공을 위해 만든 프로그램을 경기도가 막아 시민들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원성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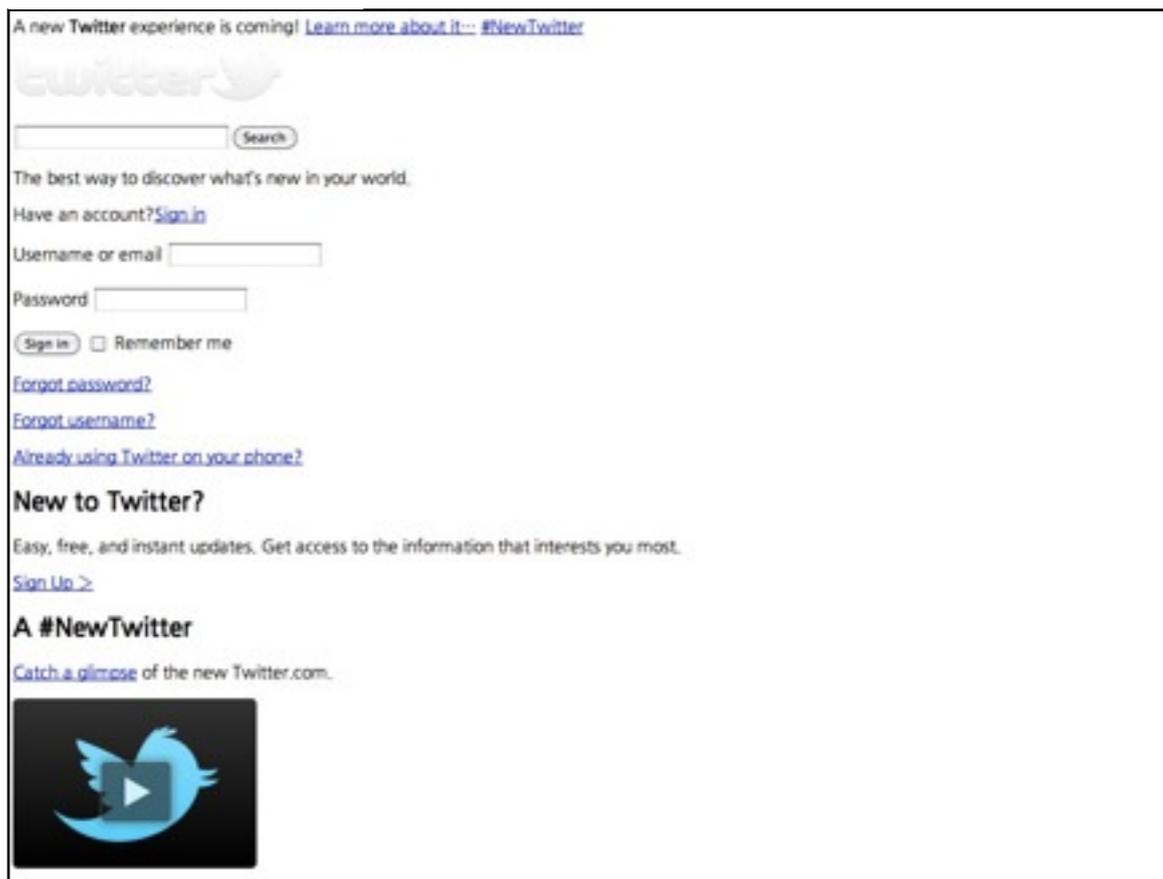


2009년에는 공공서비스를 위해 오픈된 정보를 특정 어플리케이션에서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차단했다가 이용자들이 반발하는 사건이 있었다.

공공을 위한 정보에 대하여 웹과 앱이라는 틀만 보고 둘을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모바일 콘텐츠의 개발방향 : HTML과 CSS는 정보와 모양새를 분리한다.

<http://twitter.com/>



css를 적용하지 않은 페이지
문자정보, 이미지들만 간략하게 표시된다.



css가 적용된 페이지
문자정보, 이미지 뿐만 아니라, 문단 정렬, 배경이미지들이 보인다.

html은 기본적인 정보를, css는 모양새를 담당하고 있다.

정보와 모양새를 분리하게 하여
운영체제나, 웹브라우저에 따라, 보이는 모양은 다르더라도 핵심내용은 접근이 가능하게끔 되어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내용과 별도로 사용자에게 보이는 모양새의 변경이 용이하다.

모바일 콘텐츠의 개발방향 : 정보와 모양새를 분리한 트위터 (2)



앞에서의 트위터는 정보와 모양새를 분리한 덕분에 다양한 기기에서의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동일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모바일 콘텐츠의 개발방향 : 열린 웹, 열린 앱



앱과 웹을 구분하는 현재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 넓은 관점에서 같은 계층에 있다고 생각하고 정보와 모양새를 분리하여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웹에서 정보의 불평등을 야기했던 과거를 또다시 되풀이하면 안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